

## 경기·강원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가축 100만 마리 폐사

-홍보부-

지난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 지역의 양축농가들도 돼지가 죽거나 떠내려가고 닭이 폐사하는 등 수해농가가 속출했다.

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현재 이번 호우로 폐사된 가축은 돼지 5,170마리 소 160마리, 닭 969,000마리와 기타가축 45,000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.

집중 호우로 인한 경기·강원북부지역의 수행 양돈농가 현장을 사진으로 조명해 보았다……〈편집자 주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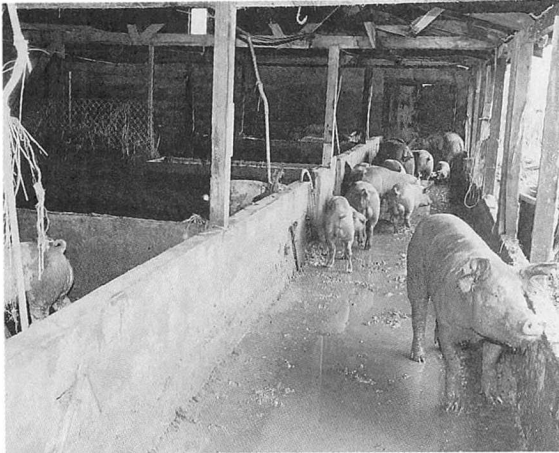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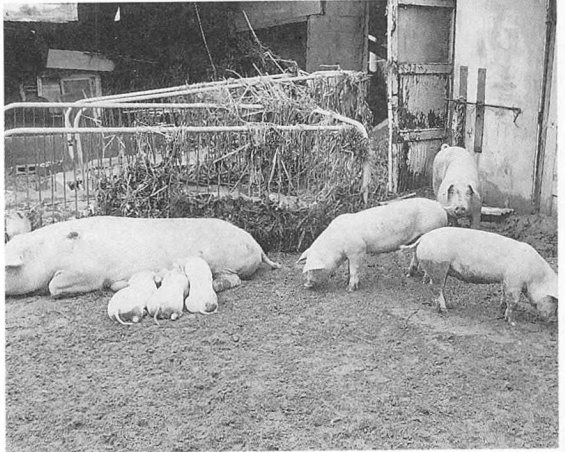


▲ 폐허가 된 임신돈사의 내부모습, 돼지는 다 떠내려 간 채 오물만 무성하다.



◀ 한 양돈가가 폭우로 인해 쓸려내려가 죽어있는 돼지를 안타깝게 끌어내고 있다.

▼ 살아남은 돼지들, 임시로 칸막이를 하여 운동장에 모아 놓았다.



▲ 진흙투성이가 된 돼지의 모습

폭우로 인해 지붕이 떨어져▶ 나가고 돈방도 다 무너져 있다. 멀리 이를 안타깝게 보고 있는 양돈가들이 보인다.



사진=축산신문사 제공